

■ 고사성어 ㉔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 곧 ① 이웃 나라나 가까운 사이의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의 비유. ② 서로 도우며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 또는 서로 도움으로써 성립되는 관계의 비유.

춘추 시대 말엽(B.C. 655), 오패(五霸)의 한 사람인 진(晉)나라 문공(文公)의 아버지 헌공(獻公)이 궈(虢)·우(虞) 두 나라를 공략할 때의 일이다.

궈나라를 치기로 결심한 헌공은 통과국인 우나라의 우공(虜公)에게 길을 빌려 주면 많은 재보(財寶)를 주겠다고 제의했다. 우공이 이 제의를 수락하려 하자 증신 궁지기(宮之奇)가 극구 간했다.

“전하, 궈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오라 궈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옛 속담에도 덧방나무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輔車相依),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란 말이 있사오네, 이는 곧 궈나라와 우나라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까운 사이인 궈나라를 치려는 진나라에 길을 빌려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옵니다.

“경은 진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소. 진나라와 우나라는 모두 주황실(周王室)에서 갈라져 나온 동종(同宗)의 나라가 아니요?” 그가 “궈나라 역시 동종이옵니다. 하오나 진나라는 동



由江 權承世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H-P: 010-5483-7511 E-mail: ykks77@naver.com -악역-
• 개인전회, 초대그룹전 2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부문 심사위원 역임
• 대한민국 미협국전 서부문 초대작가
• 한국미술협회 이사 역임
• 영남미술협회 이사장
• 유강서화연구원 원장

종의 정리를 잃은지 오래이옵니다. 예컨대 지난날 진나라는 종친(宗親)인 제(魏)나라 환공(桓公)과 초(楚)나라 장공(莊公)의 겨레붙이까지 죽인 일도 있지 않사옵니까? 전하, 그런 무도한 진나라를 믿어서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재보에 눈이 먼 우공은 결국 진나라에 길을 내주고 말았다. 그러자 궁지기는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일가 권속(一家眷屬)을 이끌고 우나라를 떠났다. 그 해 12월, 궈나라를 멸하고 돌아가던 진나라 군사는 궁지기의 예언대로 단숨에 우나라를 공략하고 우공을 포로로 잡아갔다.



수청무대어(水清無大魚)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가 (뚝을 숨기지 못해 살 수) 없다는 뜻으로, 사람이 너무 결백하면 남이 가까이 하지 않음의 비유.

후한시대 초엽, <한서(漢書)>의 저자로 유명한 반고(班固)의 동생에 반초(班超)라는 무장이 있었다. 반초는 2대 황제인 명제(明帝) 때(74년) 지금의 신강성(新疆省) 타림 분지의 동쪽에 있었던 선선국(鄯善國: 누란(樓蘭))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등 끊임없이 활약한 끝에 서쪽 오랑캐 땅의 50여 나라를 복속(服屬)시켜 한나라의 위세를

크게 떨쳤다.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의 고차(庫車: 당시 실크로드의 요충)에 설치되었던 서역도호부(西域都護府)의 도호(都護: 총독)가 되어 정원후(定遠侯)에 봉해졌다. 도호의 직책은 한나라의 도읍 낙양(洛陽)에 왕자를 인질로 보내어 복속을 맹세한 서역 50여 나라를 감독·사찰(巡察)하여 이반(離叛)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영원 14년(102), 반초가 대과(大過) 없이 소임을 다하고 귀국하자 후임 도호로 임명된 임상(任尙)이 부임 인사

차 찾아와서 이런 질문 했다. “서역을 다스리는 데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반초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성격이 너무 결백하고 조금 한 것 같아 그에게 격정인데, 원래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는 살지 않는법 [水清無大魚]’이야. 마찬가지로 정치도 너무 엄하게 서두르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네. 그러나 사소한 일은 덮어두고 대범하게 다스리도록 하거나.”

임상은 반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묘책을 듣고자 했던 기대와는 달리 이야기가 너무 평범했기 때문이다. 임지에 부임한 임상은 반초의 조언을 무시한 채 자기 소신대로 다스렸다. 그 결과 부임 5년 후인 6대 안제(安帝) 때(107년) 서역 50여 나라는 모두 한나라를 이반하고 말았다. 따라서 서역도호부도 폐지되었다.

인터뷰 - 권영복박사

한국신바람연구소 권영복박사

1. 요즘은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항상 웃음강의를 하고 또 항상 웃으며 사니까 첫째 내 건강에 가장 좋은 것 같고, 둘째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셋째 돈도 절로 따라서 버니가 얼마나 좋습니까?

2014년 한해 3백여회의 강의를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곳이 농협 여성.주부대학과 장수대학으로 80여 곳에 이르고 서울, 전남, 충남, 경남, 경북공무원교육원 등과 각 대학 CEO과정, 각 지역 아카데미, 새마을단체, 기업체, 학교 등 다양했어요. 그리고 저희 신바람연구소 20여명의 강사진이 한, 강의까지 합하면 대략 2천회가 넘는 각종 강의를 한 해 동안 했습니다.

올해는 토요일도 모 대학의 겸임교수를 맡아 강의를 해야 하니 더 바쁘게 되었습니다. 하하하하!!!

2. 한국신바람연구소와 한국웃음리더십 연구소를 소개해주세요.

=>21년 직장생활을 마칠 무렵 저의 과목으로 인해 가산이 파탄, 빚더미에 오르므로 아내가 총격으로 병원신세를 지는 등 저도 생을 끝내려고 몇 번이나 하다가 만난 구세주(가)가 바로 웃음이었어요. 이렇게 만난 웃음에 미처서 웃음이 있는 곳이면 전국을 찾다니니 후 웃음강사로서 인생 2막을 시작한 후, 2007년에 한국웃음리더십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3천여 명의 웃음치료사와 100여명의 웃음,편,건강,레크리에이션 강사들을 양성했고 신바람연구소는 2012년 말 평소에게 같이 활동하고 존경했던 황승관 박사가 돌아가셔서 이를 이어받겠다고 황박사 영전에서 가족들과 밤을 새면서 다짐한 후 설립했습니다. 신바람연구소는 현재웃음뿐만 아니라 음악,댄스,미술,사물놀이,전통놀이 등 각 분야에서 신바람나는 다양한 장르를 개발, 교육하고 강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3. 엠에스디코리아 서울지점장 등 20여년간 회사임원으로, 사회복지학박사로, 대학교수를 겸임하면서 웃음치료사 등 여러 직종으로 KBS, MBC 등 언론계통, 기업체, 각종단체, 농협 등 수많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2009년 같은 경우, 닥치는 대로 강의를 다 하다 보니 한 해에 5백여회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차가 막히거나 시간 측정을 잘못해 강의에 늦은 경우가 다반사였고 아예 강의 일정을 핑크를 낸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대구에서 오전 강의를 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왜 아직 안 오느냐는 연구사의 전화였어요. 중등교감연수 강의를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참일까지 갔으나 두시간 강의시간은 지나버렸고 이로 인해 바로 연수원 강사에서 쫓기고 말았죠.

또 논산의 부작농협 여성대학 동창회 특강의 경우, 오후 2시부터였는데 다음 날로 착각을 해서 대구에 있었는데 2시가 넘어도 강사가 오지 않자 여성복지과장을 회사임원으로, 사회복지학박사로, 대학교수를 겸임하면서 웃음치료사 등 여러 직종으로 KBS, MBC 등 언론계통, 기업체, 각종단체, 농협 등 수많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2009년 같은 경우, 닥치는 대로 강의를 다 하다 보니 한 해에 5백여회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차가 막히거나 시간 측정을 잘못해 강의에 늦은 경우가 다반사였고 아예 강의 일정을 핑크를 낸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대구에서 오전 강의를 하고 집에 와서 쉬고 있었는데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의시간이 다 되었는데 왜 아직 안 오느냐는 연구사의 전화였어요. 중등교감연수 강의를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참일까지 갔으나 두시간 강의시간은 지나버렸고 이로 인해 바로 연수원 강사에서 쫓기고 말았죠.

또 논산의 부작농협 여성대학 동창회 특강의 경우, 오후 2시부터였는데 다음 날로 착각을 해서 대구에 있었는데 2시가 넘어도 강사가 오지 않자 여성복지과

장이 전화를 했으나 대구에서 논산까지 금방 갈 수도 없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화가 난 조합장이 농협대학교에 전화를 하는 등 후유증이 엄청났어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커다란 논의 대상인데 ‘증세없는 복지’ 참 좋은데 박사님의 소견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파동 보세요. 연봉 5천만원 짜리 근로자가 15만원 더 내는 것인데도 저항에 부딪혀 거둬들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증세 없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고 탈세를 아무리 없앤다 한들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발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복지예산이 100조가 넘게 책정이 되어 있으나 무상급식, 보육예산의 경우, 지자체들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이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과감하게 보편적 복지에 서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번 준 혜택을 거둬들이는 건 엄청난 저항이 있었으나 줄 돈은 없는데 공약만 지켜야 한다고 우기면 나라가 거덜날수밖에 더 있었어요.

5. 일상생활과 웃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웃느냐 하면 인사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과 달리 모르는 사람한테는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한국 사람들 모두 화났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하루에 100명이상 인사하기 운동을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줌 누러가서도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하하하하!!

길에서 인사를 했더니 80%이상이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런데 목욕탕이나 산에서 인사하면 대부분 다 반어요! 저는 집사람한테도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합니다.

시 군 구청에 강의하러 가서 시장, 구청장 군수께 강의 끝난 후 항상 얘기하는 것이 휘하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로 웃는 시군구가 된다고요~!!

특히 보람 있는 것은 우리 종친회의 힘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든 일이 가장 자랑스런 일 중에 하나지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까?

7. 우리종친회 축친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선 중종 때 이종환의 택리지에 ‘조선인재 반재 영남, 영남인재 반재 안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518년 조선역사의 인재의 반이 영남에서 나왔는데 이중



반이 안동이란 뜻이죠. 저도 태어나 자랐고 하루에 왕복 5킬리 길을 걸어서 3년간 중학교를 다니던 곳 이 안동(김안)입니다.

안동을 대표하는 상씨가 권씨이고 안동권씨가 안동의 국회의원도 시장도 결정합니다.

현 권영세 안동시장도 안동사람이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안동사람이며 권영복 박사도 안동사람입니다.

“갓손 여자가 동족이 온대!” 는 뜻을 지닌 安東, 엘리트베스 영국여왕이 99년에 안동에 왔어요! 안동은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곳이고 행정수도는 서울이지만 정신문화의 수도는 안동입니다.

이 안동을 대표하는 안동권씨, 우리 안동권씨의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8. 끝으로 평소 건강관리와 좌우명은?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크게 잃는 것이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면 말이 있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세계 1,2위의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주치의들이나 정주영회장 주치의 등 유명 의사분들과도 교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YS 시절 대통령 주치의로 재임 중 암이 발병한 고창순 박사를 비롯, 유명한 분들도 남의 건강은 잘 돌보면서 자기 건강을 잃는 경우를 보고서는 아생연후란 말이 있듯,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디! 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혈압약, 당뇨약, 천식약, 고지혈증약 등을 취급하면서 약이 최고인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우리 몸속에 최고의 부작용 없는 내 몸에 딱 맞는 약이 있음을 알았는데 이것이 면역입니다.

이 면역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웃는 것입니다. 미소는 남을 위한 것이나 웃음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웃음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웃음을 연구해 보니 가장 좋은 운동일 뿐 아니라 최고의 날숨으로서 가장 좋은 내 몸을 청소해 주는 것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웃고 또 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켜면서도 웃고 누워서 팔다리를 들고 흔들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마침 집이 공군비행장 옆이라 전투기 소음이 엄청 큰데 이때마다 래핑타임(웃는 시간)으로 정해서 배를 잡고 환풍을 쬐고 계속 웃습니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팔아근육을 쬐고 크게 10초 이상 웃으면 모든 나쁜게 다 나갈 뿐 아니라 정력이 좋고 암세포들도 다 죽습니다.

중보편집위원 권오운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㉒

목련(木蓮)

■ 靑南 權寧漢 (안동전통문화연구원 회장)

이른봄 아직 새잎도 피지 않은 앙상한 높은 나무 가지 끝에 핀 커다란 목련꽃은 정말로 장관이고 볼수록 신기하기만 합니다.

연못 위에서나 피는 연꽃이 어찌하여 이렇게 높은 나무 가지 위에 피게 되었으며 뭘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입니다. 물 위에 피는 수련(水蓮)은 고대 인도에서는 진귀한 보배로 여겨 왔습니다.

진흙 속에서 나와 비길 데 없이 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흙탕물이 꽃에나 위에 튀어도 묻지 않고 항상 깨끗함은 마치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불법성(佛法性)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고 해서 더욱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뿌리가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은 전생을 나타낸다고, 줄기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나타낸다고, 꽃이 물 위에서 아름답게 피는 것은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세 모두 뜻하는 이 귀한 꽃은 천국의 꽃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座臺는 모두 이 연꽃 모양의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흰 연꽃, 즉 白蓮花는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더욱 사랑과 존귀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연꽃이 10m나 되는 높은 나무 가지 끝에 부더기로 피어 있으니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목련은 목련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으로서 아시아와 북아메리카에 약 30여종가량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아에는 높이 10m가량 자라는 백목련과 자목련이 대부분입니다. 목련이라는 이름은 수련과 그 꽃 모양이 같다는 데서 온 이름이라고 보는데, 개화기는 4월 상순경이며 다른 꽃이 피기 전 맨 먼저 피는 봄꽃 중하나입니다.

자목련꽃은 자색이며 백목련보다 개화기가 약간 늦고 꽃도 그 크기가 백목련보다 조금 작습니다. 지름 20cm 정도의 커다란 꽃이, 아직 썰렁하고 푸른 새싹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이른 봄동산 높은 나무 가지 끝에 피어 있는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아름답다 못해 신비롭기조차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련꽃에서는 비할 데 없이 좋고 감미로운 향냄새가 풍겨 나와서 더욱 사랑을 받으며, 봄의 풍물로서 꼭 있어야 할 보배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옛 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목련이기에 그 이름도 가지가지 많아서 목련, 목란, 왕란심, 黃心, 林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꽃뿐만 아니고 잎도 또한 무척 아름답고 크며 흡사 떡갈나무 잎을 확대한 것처럼 넉넉하고 부드럽고 큼니다. 꽃이 진 다음 이 잎을 봐도 한 여름 관상수로 볼만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련과 비슷한 흰꽃 중에 후박나무라는 일본 원산의 꽃나무가 있는데, 이나무의 꽃은 여름철에 개화합니다.

꽃은 역시 목련과 비슷하며 흰색이고, 특히 여름밤에 그윽한 향기를 발산하여 무덤과 짜증스러운 더위를 잊게 하고 더할 나위 없이 여름밤을 즐겁게 해 줍니다. 목련은 수세가 강해서 토심만 깊으면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고, 광선을 좋아하는 양수(陽樹)입니다. 번식은 주로 접목으로 하는데, 자목련은 꺾꽂이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자로 번식할 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종자를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의 형태가 좋아서 들쥐와 두더지가 몰려와서 몽땅 파먹고 만듭니다. 그래서 종자를 발아시키기 위해서는 쥐가 못달려도록 땅 속과 땅 밖에 철망을 쳐서 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권순채 (향토연구가)

그리고 종자가 잘 발아하도록 굵은 모래와 종자를 쥐고 손으로 강하게 비벼서 종자 껍질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수분이 스며들어 발아를 쉽게 하도록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종자가 땅에서 겨울 추위로 얼어 터져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수분이 스며들어 발아하는데, 그 상태를 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모래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한라산에는 백목련이 많이 자생하며, 소백산에도 희방사 부근에 백목련과 자목련이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은 오고 봄마다 목련은 어김없이 핀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목련도 보는 사람에게만 있는 실체입니다. 이 목련을 내 마음의 영상에 담고 안 담고는 모두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달의 시
권순채 (향토연구가)
석류
빨간 석류꽃이 피며는
장미무더위 삼복더위에
석류알이 익어가고
서늘함에 갈색이 탕이가떡벌어지며는
가을 하늘 보타 맑고
보석보다 빛나는
알이 춤추며 박혀
하얀 이보다 더 깨끗하군데
새뭍 달콤
호리병하나
연두리 깨진분분
하얀이 내놓는
처녀의 환한 웃음이구나

신간안내

향촌 권오창씨

‘죽초언행실록’ 발간

향촌 권오창씨(본원 중보자문위원·사진) 지난 7월10일 가은기획(刊)으로 ‘죽초언행실록(竹樵言行實錄)’을 발간했다.

죽초(竹樵 謙 泰陽)公은 권오창씨의 조부님이다. 이미 ‘죽초유고문집’에 행장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 책은 조부님과 손자들간에 있었던 일을 추념의 일편으로 회상하고자 하며 이 가운데 잊지 못할 언행록을 적어 후손들에게 지침의 본으로 삼고자 발간했다.

公은 한학자로서 수신제가와 유가지도(儒敎之道)를 실천했으며 천품이 은화, 감직, 고결하였으며 외관부터 절저히 정결 정돈된 선비의 자세를 견지하고 서책

을 중요시했다. 항상 한문서적을 소탁자 위에 얹어 읽으며, 손자들에게 이 책의 내용은 이러 이러한 것이 수록되어 있고 어떤 목적에서 저술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이나 마을 촌로들이 오면 꼭 책의 내용 중 일부를 펼쳐서 강론을 하였는데 당시 역사적 배경을 참작하여 이러한 연유로 이렇게 이권이 주장되지 아니하였나를 짐작했다. 사망방에는 많은 문집들이 쌓여 있어서 일일이 손자들에게 책의 내용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많은 책이 6·25사변으로 가택의 소실과 함께 없어지고 공의 저술도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가계(家系)에 관한 책과 일부 책들은 깨짝에 넣어서 부엌바닥을 파고 묻어 놓은 것이 수복 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다.

이렇듯 죽초공은 일생동안 역사적 시대의 흐름의 전환기와 과도기에 신고한 삶을 산 것이 극명하였고 그때그때 마다 가슴들이 나아갈 비를 잃은 방향으로 지향하도록 영도하였으며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미력이나마 공헌, 기여하였음은 경북 영주 주민들의 칭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권오복 편집위원)